

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이범호 주임, 미담·칭찬 월드컵 '우수상' 수상

✎ 송예림 기자 | ☎ 승인 2026.03.02 14:36

자살 위기 시민 구조 기여



(왼쪽부터)이범호 한국농어촌공사 주임,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장미진 농식품부 행정사무관, 이승환 농식품부 수의사무관.(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지사장 김태호)에 근무하는 이범호 주임이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미담·칭찬 월드컵'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미담·칭찬 월드컵은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마련한 '미담 사례 발굴 및 포상 방안'으로 농식품부 및 농식품부 산하·유관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 수상자는 3인으로 대상에는 장미진 농식품부 행정사무관, 최우수상에는 이승환 농식품부 행정사무관에 이어 우수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이범호 주임이 선정됐다.

이범호 주임은 심야 시간대 자살 예고자에 대한 수색 협조 요청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CCTV 분석을 통한 수색 방향 재설정에 단서를 제공했다. 또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양수 작업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등 신속한 판단과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이 주임은 이 공로로 지난해 9월 김포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수상도 하게 됐다.

김태호 지사장은 "직원의 신속한 판단과 책임감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적 책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범호 주임은 "긴박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예림 기자 gimpo1234@naver.com